

2022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2.11.29.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6/10	5	2	13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이희중 위원, 류용환 위원, 임재근 위원,
손기배 위원, 마정미 위원, 박미숙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	5	-	1	7	-	7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7	-	-	7

* 제시의견 수용비율 기준으로 평가(활용비율 0%는 0점)

다. 전월(10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보도	<독립서점 보도> 지역의 서점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취재한 건 좋았는데 다른 사례 등 추가적인 보도를 이어나갔으면	지역 경제 이슈와 상공인들 이슈를 다룰 때는 피상적인 것만 다루지 않고 대안으로 귀결되는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 더 노력해서 주목하겠음. <22. 11월 조치>	'22.10월
보도	<UCLG 보도> UCLG행사에 대한 취재는 충실히 했는데 UCLG의 결과물인 '대전선언' 협약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쉬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대전선언'은 상당히 의미있는 선언인데 보도가 어렵고 아쉬웠다. 도시의 구조적 기능과 어떤 철학을 담고 있는지 병행해서 취재하겠음 <22. 11월 조치>	'22.10월
보도	<무료사진 촬영, 경품행사 보도> 제주도 무료 여행 광고 기사, 가전매장 경품 행사 등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집중 취재 있었으면	'효','정' 마케팅을 이용해서 무료사진 피해를 보는 경우 있는데 소비자 피해도 있지만 실제 나눔과 무료봉사 하시는 분들 피해도 있을 수 있어 소비자 이슈는 관심을 갖고 보도하겠음 <22. 11월 조치>	'22.10월
교양	<모두의TV> -아빠와 딸의 구성이 아닌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 등 다양하게 구성해 주기를... -현대무용과 스트리트 댄스하시는 분들의 작품 연출 부문은 너무 지루해	세대간에 공감을 유도해 보자는 취지의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딸과 아빠 뿐만 아니라 딸과 엄마 등 다양한 구성을 시도할 예정, 지루한 부분도 진행자의 역할을 강조해 제작에 반영하겠음 <22. 11월 조치>	'22.10월
교양	<참참참, 달콤한 칼국수> 지역을 대표하는 칼국수를 소재로 스토리를 만들어 지역성을 잘 살렸지만 전개가 너무 빠르고 갑자기 끝나는 느낌 받았고, 후속편이 있는 건지 안내자막이 필요	웹 콘텐츠의 성격상 기승전결을 짧은 시간 안에 가져가야 하는데 급하게 마무리되는 느낌 받을 수 있는 점은 제작시 더 고민해 보겠고, 차기편 부터는 후속편 여부 등 안내자막으로 고지하겠음 <22. 11월 조치>	'22.10월
기타	<원도심 사라져가는 것들> 원도심에서 사라져가는 가치 있는 공간들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을 지키는데 대전MBC가 기여해 주었으면	대전MBC는 지역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함. 이번 라디오 시대공감에서 일회성이 아닌 시리즈로 기획할 수 있도록 제작진과 논의하겠음 <22. 11월 조치>	'22.10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2년 11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최병욱	한밭대학교 총장	대덕연구개발 특구협의회	과학기술단체	남/1961 21.05.01~23.04.30
부위원장	이희중	대전보건대학교 방송컨텐츠과 교수	대전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소외계층대변	남/1964 21.05.01~23.04.30
위원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소장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단체	남/1978 21.05.01~23.04.30
위원	정훈진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남/1967 21.05.01~23.04.30
위원	황혜진	대전공공미술원 대표	대전동구문화원	문화단체	여/1977 21.07.01~23.04.30
위원	류용환	한국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대표	한국소비자모임	소비자단체	남/1960 21.11.01~23.04.30
위원	손기배	굿네이버스 대전세종지부	굿네이버스 충청본부	인권단체	남/1983 22.03.01~23.04.30
위원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단체	여/1966 22.05.01~23.04.30
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소외계층대변	남/1977 22.05.01~23.04.30
위원	박미숙	(주)비앤비컴퍼니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경제단체	여/1964 22.05.01~23.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지역 화폐 보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폐지한다는 뉴스를 다루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정부의 국비지원이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 후속 보도로 관심을 높이면 어떨지	회의록 첨부			
교양	<참참참> 대전지역의 소재인 칼국수를 소재로 웹 드라마를 만든 것은 참신한데 내용에 젊은 남녀의 연애이야기만 부각되고 칼국수는 부각되지 않음	회의록 첨부	○		
교양	<지역소재 웹 드라마 제작> 지역의 명소를 소재로 하는 웹 드라마 제작이 다음에도 이어지는지 어떤 소재로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	회의록 첨부	○		
교양	<시대공감> 라디오 대표 시사프로그램인데 시간이 30분이다보니 다양하게 주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간추린 뉴스 등 다양하게 다뤄보면 어떨지?	회의록 첨부	○		
교양	<격렬비열도> UHD 영상, 내용 구성은 너무 좋았는데 실내 인터뷰 장면은 자연 다큐와 어울리지 않았고 괜이갈매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	회의록 첨부	○		
교양	<끼니멘터리> 일반인들의 끼니와 삶을 연결시킨 좋은 프로그램인데 확장성을 가지고 대전MBC 대표프로그램으로 전국 방송이나 계열사 교환 추진하는게 어떨지	회의록 첨부	○		
기타	<AM 방송 휴지> AM방송 휴지는 몇 시에 하는지? 또 휴지 후 6개월 뒤 폐지하는데 그 뒤에는 라디오 채널명을 뭘로 하는지?	회의록 첨부	○		

2022년 11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6명)
이희중 위원, 류용환 위원, 임재근 위원, 손기배 위원, 마정미 위원, 박미숙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간사

오늘 회의는 위원님 열분 중에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11월 대전MBC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 4건이 있는데요. AM방송 운영 휴지 관련 1건, 힐링자막 오타 1건, 월드컵 관련 인터뷰 요청 1건, 과거 프로그램 영상물 문의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김환균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균 사장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보도와 제작 프로그램에 많은 참고가 됐고, 위원님들의 대전MBC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대전MBC가 시청자들에게 해야 할 책무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더 나은 콘텐츠로 지역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더 충실한 지역 방송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이번에는 시청자위원을 대표해서 이희중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고 정기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중 부위원장

시청자 위원으로 참여한지 1년 조금 지났는데 모니터 할 때 분석적으로 텔레비전을 보게 돼서 참 좋았어요. 한 해 부지런히 제작하고 연말 특집이 나갈 텐데 그동안 고생했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시청자위원회 이름으로 상패를 주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임재근 위원

대전MBC의 특집 다큐멘터리는 잘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격렬비열도> 프로그램 잘 봤습니다. 오랜 기간 정성들여 만든 다큐멘터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프닝이나 중간에 임팩트 있는 부분들은 마치 공익 광고를 보는 듯 한 장면들이 연상됐습니다. 섬 하나를 어떻게 1시간 가까운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까 약간 궁금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연의 신비로움과 웅장함 그리고 어업 주권과 함께 영토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소중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1919년도 실종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소환하면서 역사적인 내용에 대한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촬영기법도 타임랩스, 드론, 수중 촬영 등 다양하고 UHD 제작으로 다큐멘터리의 질을 높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태안군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본부장 등의 실내 인터뷰가 들어가면서 약간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질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1세기 <끼니멘터리> 시즌 2인데요. 다양한 인물들, 그 들의 삶, 또 그 들이 먹는 다양한 끼니들을 통해서 한 편의 휴먼 다큐멘터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1월 17일 부여 휴집 부부, 중촌동 맞춤 옷거리 터줏대감 김옥희 디자이너, 전통 놀이 사냥꾼 임명수 박물관장의 끼니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훈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물과 끼니들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들은 정말 손색없이 잘 만드는데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도국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도 자료를 쫓아서 취재하는 것들이 보여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11월 23일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건과 관련된 단독 보도가 있었죠.

어려운 여건속에서 보도 인력들이 단독 기사를 취재해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시설법의 문제점을 잘 고발해서 뉴스로서 가치가 있었습니다. 향후 보도 인력들이 더 보충된다면 더 좋은 보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중 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용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류용환 위원

제작진들이 고생해서 뛰어난 작품을 만드는데 우리 시청자들은 너무 편하게 감상하는 것 같습

니다. <격렬비열도>는 뛰어난 자연유산적 가치를 조명한 작품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인도 이해하기 편하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과 수려한 경관을 담은 영상미를 감탄하면서 보았습니다. 다양한 종 보전에 절대적인 생물 다양성, 일반인 미답지로 인한 자연 생태와 수려한 비경이 좋았습니다.

더불어 한중 분쟁 시너지로 해양용 교수로의 중요한 가치를 인식시킨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격렬비열도에 대륙과의 문화교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주장현 해양학자의 글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담고 있으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함께 어우러진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말미에 향후 영해 관리를 위해 부도가 건설이 된다는 보도가 있던데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그러한 건설로 인해서 향후 자연유산적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웹 드라마 <잡잡> 인데요. 잡지사가 지역 학생 중심으로 대전 칼국수를 취재하는 내용이라구요. 청춘 남녀의 풋풋한 사랑이 달달하고 예술의전당과 대동 하늘공원 등 우리 지역의 명소를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효과까지 얻어서 대전시의 공익광고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웹 드라마가 계속 이어지는지 다음 소재는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중 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류용환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손기배 위원님 말씀 있으실까요.

손기배 위원

저도 <격렬비열도>를 시청했는데요. UHD화질로 제작이 돼서 화면이 선명하고 입체감이 느껴졌고요. CG처리와 촬영도 시청자들에게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음향과 내레이션도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안정적인 느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격렬비열도가 태안군 소재 섬으로 지역적인 특색에도 잘 부합할 수 있는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꿩이갈매기를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더 많이 보여주시려고 어떤 테마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적 가치와 지정학적 가치들을 다루면서 중간에 꿩이갈매기를 보여주시니까 오히려 새가 더 부각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웅장한 느낌의 자연 다큐멘터리를 본 느낌이 들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뉴스에서 온통대전 폐지를 다루었는데요. 시민 인터뷰와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들을 다 담아주셨고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표했던 연구 자료들도 인용을 하셔서 지역 화폐가 어쨌든 지역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근 기사에서 지역 화폐를 위해서 국비가 새롭게 편성됐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지

역 안에서는 새로운 화두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대전시의 입장도 분명히 선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와 관련된 보도를 이어주신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이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정일이었고 12월 19일이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아동 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거리와 캠페인들을 진행했는데 대체적으로 아동학대 관련된 이슈를 어린이날에 주로 다루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는 상대적으로 비중을 약하게 다루는 성향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동학대와 관련된 것들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다뤄주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경쾌한 느낌의 어떤 콘셉트로 취재라든가 방송을 편성하신다고 한다면 훨씬 더 시청자 입장에서도 그 취지에 맞게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희중 부위원장

손기배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정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마정미 위원

우선 다큐멘터리 <격렬비열도> 감동적으로 봤고요.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는 생명의 섬 2부는 공존의 섬이라는 콘셉트이어서 1부에서는 생태학적인 의미, 갈매기 등 생명의 새로운 출발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았다면 2부 공존의 섬에서는 사회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연 다큐의 웅장함과 촬영 시간과 노력들이 고스란히 잘 담긴 프로그램인데 영상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드론과 파노라마 카메라들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했던 것 같고요. 저도 인터뷰 부분이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관계자들의 인터뷰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웹 드라마는 <모두의 TV>에서도 옴니버스로 대전의 대표 콘텐츠로 실으셨더라고요. 일단 칼국수라는 식문화를 웹 드라마 형식으로 다뤘다는 게 너무 참신했습니다. 대전지역 문화 중에 칼국수는 독특한 문화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걸 웹 드라마로 만들어서 굉장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고 재미있었습니다. 일단 콘텐츠가 젊은 친구들한테도 잘 어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대전의 지역 문화들을 담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드라마이다 보니까 칼국수의 존재는 조금 잘 안 보였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냥 달달한 연애 이야기가 주종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잡'이라는 이름이 계속 들어오고 좋기는 한데요. 칼국수를 대표하는 건 아닌 것 같

아서 만약에 이 이름으로 다른 시리즈를 만든다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시시각각>은 11월 주제가 굉장히 지역 밀착적인 주제를 다루셨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 기부 문제, 대전 유아교육비, 대전 부동산 분양가 등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의 문제들을 잘 다루어 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 2가 시작된 <21세기 끼니멘터리> 프로그램도 너무 좋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일상들, 사실 먹고사는 일이 일상인데 사람들의 일거리와 먹거리를 같이 다루어서 굉장히 따뜻하고 소박하고 진심이 느껴져서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라디오 <시대공감>은 가장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인데 시간이 30분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다루지는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추린 뉴스나 다뤄볼 만한 시사적인 이슈들을 시간을 줄이고 다양하게 다루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중 부위원장

마정미 위원님 다양한 의견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미숙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미숙 위원

네 저는 <격렬비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최초로 UHD 화질로 방송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의 독도답게 천혜의 자원이 숨쉬는 격렬비열도 동식물 생태를 보고 UHD 화질답게 바다를 탐사할 때는 저도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생생한 느낌을 받았습시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팽이갈매기 화면에서는 그 동안 선명하게 볼 수 없었던 팽이갈매기를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정말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몰입도를 느끼면서 시청하였습니다. 또 매가 날아갈 때는 제가 매의 속도를 따라 같이 하늘을 나는 느낌을 받으면서 생생한 느낌으로 시청을 하였고요.

또 격렬비열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화산섬답게 3만여 개체의 종에 대해 다양한 해양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는 섬이라는 것을 처음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격렬비열도가 우리나라 서해 영해 기점을 설정하는 섬이라는 것을 처음 알 수 있었고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섬이라는 것을 UHD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어서 시청자들도 아마 감동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중 부위원장

네 박미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끼니멘터리>에서 대둔산 산장 아저씨가 사진을 찍으면서 한 얘기들을 보면서 잔잔하니 참 좋다는 생각

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확장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영차 바다야>처럼 대전MBC 간판 프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이템의 확장성도 있고 인물을 테마로 하기 때문에 소재도 많고 그래서 다른 지역과 교류 아니면 전국에 방송할 수 없나 하는 아깝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격렬비열도>는 접근하기도 힘들고 촬영하려면 짐도 싸들고 가야 되는 그런 섬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 나열식으로 구성한 것인데, 아예 그냥 팽이갈매기 하나로 가던가 아니면 서해 중국 불법 어선들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곳인데 그런 거 하나 찍었으면 조금 더 프로그램이 활력이 있고 액티브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상도 좋긴 한데 수중 촬영도 했다가 갑자기 식생도 얘기했다가 팽이갈매기도 했다가 일정 부분을 포기하고 하나를 집요하게 찢으면 훨씬 몰입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이름으로 고생한 제작진들에게 연말에 상패를 줘서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은데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손기배 위원

연말에 항상 위원회에서 관련해서 시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 위원님들 논의를 거쳐서 시청자위원회 이름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중 부위원장

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욱 편성국장

먼저 임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격렬비열도> 아쉬운 부분이 현장 인터뷰 내지 최소한 바닷가로 나가서 인터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담당PD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류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륙과의 문명 교류 부분... 그 부분도 영토 문제나 중국과의 우리나라 영해 기점이라든지 하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안 시설 관련해서는 저도 살짝 불편하기는 했는데 실제 접안 시설이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기 불편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있나 봅니다. 그 추이를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드라마 <잡잡>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논산에서 올로케를 해서 <철수와 영희>라는 웹 드라마를 촬영했고 올해는 대전을 장소로 해서 <잡잡>을 제작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공공PPL이라는 개념을 탑재해서 지자체 금원으로 그 지역 홍보를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제작을 했고 이 것을 5개 계열사에 공급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대전에 대한 홍보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없지만 여러 지자체에 맞춤형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자체에 저희가 컨택을 해서 제작이 가능하면 그 지역을 올로케해서 지역 소재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자체와의 매칭은 미정인 상태인데 제작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격렬비열도>의 팽이갈매기를 구성한 담당PD의 의도는 뭐냐 하면 제일 앞부분에 팽이갈매기의 짝짓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새끼가 나오고 성장하는 모습을 중간 중간에 넣음으로 해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한정된 섬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잘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짝짓기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하고 중간에 죽어 있는 어린 팽이갈매기도 보이고 그 다음에 성장해서 첫 걸음마를 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중간 중간에 장치적으로 넣은 부분입니다.

마정미 교수님 모니터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적하신 실내 인터뷰 부분 염두에 두겠습니다. <잡잡>은 핵심소재인 칼국수가 많이 부각되지 않아서 아쉬운데 어쨌든 지역의 소재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 콘텐츠의 본질에 들어가야 된다는 지적 감사합니다. 저 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작자가 젊은 감각으로 하려다 보니까 핵심 소재의 본질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공감>은 1시간으로 편성을 하고 싶어도 그 뒤에 <손에 잡히는 경제>가 워낙 충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라서 그 부분까지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침에 뉴스를 요약해주는 부분은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의 칭찬 감사드리고요. 이희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끼니멘터리를 지역 3개사와 교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끼니멘터리가 지역사에 12개씩 반영이 되는 데 나머지 지역사들도 규격에 맞게 교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웅 보도국장

보도 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위원님의 기자 인력 부족하다는 언급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종합 뉴스를 지향하지만 모든 것을 다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인력 혹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 의제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을 보도하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뉴스 특성상 또 돌발적인 다양한 사건 사고들에 대한 것들도 알아야 되지만 지난번 현대아울렛 화재 사건 같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지 발굴 보도해야 하는 것들이 지역 언론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슈를 제기하고 추적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지역화폐 문제는 예산 때문에 현 시장이 캐시백을 줄여가면서 폐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 예산이 잡히다 보니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역 화폐가 유용하다는 의견도 있고 다른 형태의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지역 화폐가 반드시 옳다 아니다의 방식이 아닌 지역 경제에 어떤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포커싱을 맞춰서 조명해 보는 보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밀착형 뉴스 관련해서는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이라든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이나 이슈들을 놓치지 않고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정이 났는데 대전 MBC 명투성이 공주교도소 재소자 사망 진실 보도가 목요언론인클럽 올해의 방송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동안 접근하기 어려운 교도소 같은 교정 행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묻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발굴 보도한 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대전MBC 뉴스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재근 위원님 참여하신 오마이뉴스 살아있는 역사교과서 대전 현충원이 신문 통신 분야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표 간사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부위원장님께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희중 부위원장

수고하신 제작진들에게 감사패를 주자고 얘기를 꺼냈는데요. 제가 말을 꺼내놓고도 부담스런 건 한데 위원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로컬리테에 대해서도 한참 얘기를 했고 오늘도 지역 밀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전MBC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역방송으로 지역 밀착형 기사나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가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표 간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균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김환균 사장

늘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혼날 각오를 하고 오는데 대체로 칭찬만 해 주셔서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작진들에게 잘 전달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사진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진 한 장이 역사적인 순간을 이렇게 포착해 낼 수 있구나 생각했고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이렇게 사진으로서도 작품성이 있지만 그 사진 한 장이 주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카메라는 이 장면을 포착해냈구나 하는 묘한 감동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표 감사

제안해 주신 시청자위원회상은 저희가 매년 시행을 해왔는데요. 자세한 건 간사님과 다시 말씀을 나누고 위원장님께서 올 연말에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